

정부 포용금융 정책 머리 맞대다

도, 금융위 주최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참석...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전국 최초 보험업권 상생협약 기반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소개... 사례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가 9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주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지역 금융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추진 방안과 지역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덕민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전북경제진흥원·농협은행·광주은행·부산은행·카카오뱅크·농협금융지주 등 금융권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

해 지역 금융 현안을 공유하고 포용금융 정책 추진 방안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은행대리업 시범사업 운영방안 △지방은행-인터넷은행 중소기업 공동대출 운영방안 △보험업권 상생보험 운영계획 △NH금융지주 포용금융 강화방안 등이 발표됐으며, 지역 금융으로 해소와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도는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보험업권 상생 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추진 중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을 소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금융안정망 구축 사례를 공유했다.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은 보험업

권 상생기금과 도비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종합보험과 풍수해보험, 지역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연계해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종합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자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며, 화재·상해 등 각종 위험 보장은 물론 풍수해보험과 고공·산재보험도 지원까지 연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현재 종합보험 운용사 선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8월부터 '전북 소

상공인 든든보험'을 본격 운영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안정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포용금융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경영안정을 뒷받침하는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소상공인과 지역업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인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추진하는 포용금융 정책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 보험업권 상생협약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을 차질 없이 추진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이 지역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종합보험 운용사 선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8월부터 '전북 소

/이만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9일 자신의 지역구인 무주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무주형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

민주 안호영 의원, 무주군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9일 무주군청에서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무주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무주군 주요 현안과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유승열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군의원 지역위원회 관계자, 무주군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안호영 의원과 진안군에 이어 진행된 릴레이 예산정책협의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안 의원은 안주·진안·무주 3개 군의 핵심 현안과 국가예산 사업을 차례로 점검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무주군은 이날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무주형 농어촌 기본소득,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은 현대로템 투자협약과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선정에 따라 약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무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태권도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건립 사업과 무주형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한 추진 방안,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 예산안 편성 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필요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주가 가진 태권도·관광·친환경 농업 자원과 항공우주·방산 분야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전북도, 무주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주·진안·무주 릴레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만큼, 2027년도 국가예산 심사 과정에서 완전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기자·무주=손홍식기자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밑그림 완성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 민선 9기 100대 공약 확정

민선 9기 전주시정의 밑그림을 그려온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가 한 달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 실현을 위한 100대 공약을 확정·발표했다.

전주시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시민주권 열린 전주위원회 위원장 안국찬 전 전북대학교 부총장은 9일 전주시 별관 15층에서 조지훈 전주시장과 전주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 최종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 마련한 시정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9기 시장 로드맵 수립을 위한 30여 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시민주권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실행 전략이 담겼다.

위원회는 그동안 △시정혁신 분과 △경제·산업 분과 △문화·예술 분과 △돌봄·복지 분과 △도시·환경 분과 등 5개 분과와 △재정 혁신도시 전주 특위 △기업 진화 도시 전주 특위 △세계 영화 도시 전주 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선 9기 핵심 과제를 발굴해 왔다.

특히 위원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총 107회의 업무보고와 16회의 간담회, 51회의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이어왔다.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한 온라인 열린 시정 소통 공판은 운영 기간 동안 총 313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으며, 가입자 307명, 누적 방문자 8만 7,843명, 공감



전주시 민선 9기 시장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한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9일 전주시 별관 15층에서 열린 가운데, 조지훈 전주시장과 안국찬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 3,913건을 기록하는 등 민선 9기 열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기존 88대 공약을 시민 의견과 전문가 논의를 반영해 100대 공약으로 확대하고, 민선 9기 전주의 미래 방향을 담은 4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4대 전략은 △시민 참여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시민 존중 도시' △시 기획·연구·제조·실증 생태계를 구축하는 '3대 특별 도시'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민 돌봄 책임 도시' △역사와 시민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 등이다.

주요 공약으로는 △시민 참여 제도화 및 시민청 신설·운영 △전주형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신남노고 흥이 나는 역사 문화도시 조성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전주 아이 콕 수

당' 도입 △통합터미널 복합 생활거점 추진 △비상 재정 TF 구성 및 재정 구조 전면 공개 △전주형 소상공인 성장 안전망 구축 △전주형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안국찬 위원장은 "시민주권을 회복하고 열린 시정을 통해 시민이 존중받는 전주의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짧은 기간 동안 힘 없이 달려왔다"며 "오늘 발표한 내용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새로운 전주의 미래를 열기 위한 종합 설계도"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전주시의 손에 정책으로 꽃피워줘야 한다"라며 "위원회 활동에 함께한 인수위원회와 자문위원, 실무위원, 파견 공무원 그리고 민고 응원에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의와 현장의 목소리를

답아 민선 9기의 소중한 청사진을 완성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가 변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며 "3개 도시를 잇고 500만 전북인을 품는 플랫폼 도시로 도약해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이날 최종 보고회 이후 해단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최소 인원이 남아 분과·특별위원회별 활동 내용과 공약 추진 방향을 담은 백서 편찬 작업을 진행하며, 완성된 백서는 오는 20일 조지훈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만호기자

제10대 고창군의회 '군민중심, 현장중심, 실천하는 의회'

박성만 의장, 의정 계획 발표 군민 삶 최우선 등 약속 다짐

제10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박성만 의장은 9일 고창군의회 의정실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제10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의정활동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박성만 의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의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의정이라는 중책을 통해 군민 여러분께 더 폭넓고 책임감 있게 봉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늘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화합을 최우선으로 여겨온 신념을 이제 고창군의회 전체로 확장해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성만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고창군의회는 '군민중심, 현장중심, 실천하는 의회'를 의정구호로 정하고, 다음의 네 가지 약속을 다짐했다.

첫째, △'군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는 군민중심 의회가 되겠다. 둘째, △14개 읍·면을 누비는 현장중심 의회가 되겠다. 셋째, △듣는 데서 멈추



제10대 전반기 고창군의회 박성만 의장이 9일 고창군의회 의정실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등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 않고 실천하는 의회가 되겠다. 넷째, △건강한 경제와 성숙한 합치로 고창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체적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성만 의장은 "제10대 전반기 고창군의회는 의정적인 성과보다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행복을 기준으로 평가받겠다"고 말하며, "인

론인 여러분은 군민의 여론을 전달하고 의회의 노력을 전하는 소중한 동반자로서, 의회가 바른길을 갈 때는 성원을 흔들릴 때는 매서운 비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고창=김영식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군산시의회 의장단 현장 소통

군산시의회(의장 서동수)는 9일 서동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군산지역 주요기관을 찾아 기관장과의 환담을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동수 의장을 비롯해 송미숙 부의장 설경민 운영위원장, 김영란 행정복지위원장, 김경식 경제건설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제10대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군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을 시작으로 군산시공무원노조,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경찰서, 전주지법 군산지청, 전주지법 군산지원 등 차례로 방문하며, 전반기 원구성에 따른 취임 인사 및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김만호기자

군산김제부안 주요사업 예산 확보 총력

민주 박지원 의원, 예결위원 선임 후 첫 예산 행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이 8일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지역 주요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방문에 앞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획예산처 재정투자심의관을 만나 국도 30호선 부안 진서~보안 구간 선형개량사업과 전주~김제~군산을 잇는 국도 2호선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지역 간 연결성 강화와 관광·물류 여건 개선,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대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박 의원은 곧바로 세종으로 이동해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용지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논공수매 예산 추가 반영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정부 예산안 반영을 강하게 건의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실제 부처별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산업중소벤처예산과



장, 국토교통예산과장, 농림해양예산과장, 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투자사업관리과장 등을 잇달아 만나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설명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내수면 다짐돌 사업장 구축 △AI로봇 표준화 및 온디맨드 자율제조 플랫폼 구축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부안 백산생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새만금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국도 2호선 부안~고창 구간 중 부안 상서면 사선제 일원 2차선 병목구간의 4차선 확장 필요성 등이다.

이번 방문은 박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곧바로 진행된 첫 예산 확보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 소속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공식 구성

남원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남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를 공식 구성, 이는 남원시의회 최초의 교섭단체 구성이다.



이전에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앞으로 의원 간 협력과 의견 조

율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중심의 정책 추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상현 대표의원(사진)은 "남원의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남원시 주요 현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강화하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교섭단체가 되고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남원 발전을 이끌고 성과로 달하는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